

LGD, 매출감소·고객 다변화 지연... '속 빈 흑자전환' 지적

매출 감소세에도 흑자전환 기록 외형성장 보다 비용절감 영향 커 업계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해야"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4년 만에 영업흑자를 기록했지만 매출 감소와 고객 다변화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속 빈 흑자 전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임한 정철동 사장 체제에서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지만 외형 성장 없이 비용 절감 영향으로 흑자 전환이 이뤄진 만큼 이를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LG디스플레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 매출 25조8101억원, 영업이익 51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5606억원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지만 매출은 전년 26조6153억원보다 감소했다.

문제는 이번 흑자 전환이 디스플레이 시장 수요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라기보다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 조정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다.

실제로 회사는 최근 LCD 사업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 비용 효율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구조에서 고객 다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사업 안정성 측면의 리스크로 지적된다. 주요 고객사의 제품 판매나 시장 점유율 변화가 곧바로 부품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LG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주요 고객사인 애플 공급 물량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알

려졌다. 여기에 LG디스플레이의 고객 다변화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최근 중국 TCL에 OLED 패널을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LG디스플레이는 아직 사업 구조 변화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TCL 공급은 이제 시작 단계로 당장 매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OLED 중심 전략 역시 새로운 방향 이라기보다 기존 전략을 강화하는 성격이 크다는 평가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OLED 중심 전략은 이전부터 이어온 방향이지만 최근 들어 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쟁사와의 전략 차이도 드러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OLED뿐 아니라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시장에 지난해 약 71.4%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레도스(OLEDs) 등 XR 기기용 디스플레이 개발을 추진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의 연구개발비는 2025년 약 3조원대 수준이다. 반면 LG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비는 약 2조원대 규모에 그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23년 LG이노텍 대표를 지낸 정철동 사장을 LG디스플레이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며 경영 정상화를 맡겼다. 정 사장은 취임 이후 LCD 사업 축소와 OLED 중심 사업 재편을 추진해왔다.

다만 매출 감소와 고객 집중 구조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이번 실적을 두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 산업에서 특정 고객 의존도가 높으면 해당 고객사의 판매 부진이나 시장 점유율 변화가 곧바로 실적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고객 다변화는 부품사들에 중요한 경영 과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에서 벗어난 것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고객 다변화와 기술 투자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적 개선이 일시적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국내 주요기업, 채용규모 대폭 확대

AI 분야 등 미래 시장 경쟁력 확보 현대차그룹 1만명 이상 채용 검토 삼성 전자·물산 등 18개 관계사 공채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신입 모집

삼성과 SK,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인공지능(AI) 등 미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인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 강화와 함께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0일부터 4월3일까지 2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전 부문이 참가하는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신입·경력 인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전 부문에 걸쳐 이뤄진다. 채용 공고는 171개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신입 특별 채용을 동시에 운영해 균형 잡힌 채용 기조를

이어간다. 현대차는 올해 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대비 채용 규모는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두고, 대규모 채용을 통해 인재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올해 채용을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채용 규모가 7000명대였다면, 올해는 40% 이상 확대해 다섯자리수 채용에 나선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SK도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8개 관계사가 참여하는 상반기 공채를 시작해 17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를 도입한 삼성은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이 제도를 70년째 유지 중이다.

채용은 3월 직무적합성 평가를 시작

으로 4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5월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SW) 직군은 실기 테스트를, 디자인 직군은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우수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은 평택 5공장 기초 공사와 용인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에 발맞춰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인력 수혈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회장이 앞서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SK하이닉스도 10일부터 기술·사무직 신입 모집을 시작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패키징 개발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세 자리수 규모로 확보한다. 특히 시기와 경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새로운 채용 전략인 '탈린트 하이웨이'를 통해 신입부터 해외 인재까지 아우르는 유연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금호타이어, 美 'SOLUS TA11' 리콜 진행

'트레드 분리 현상' 논란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제품의 안전에 치명적인 '트레드(타이어 바닥면) 분리' 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타이어 트레드 분리 현상은 타이어 설계 등의 문제로 타이어의 마찰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타이어 바닥면이 통째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소비자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SOLUS TA11 타이어에서 트레드 분리 문제가 발견됐다. 이 제품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제정한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139호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혹한 주행 조건에서 트레드 분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타이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의 타이어는 2021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에 인수되면서 투자 위

축 등의 문제로 제품 품질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018년 더블스타로 인수된 이후 연구개발비를 축소했다. 매출 규모가 작은 넥센타이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양사의 매출을 보면 금호타이어는 2018년 2조5587억원, 2019년 2조3692억원, 2020년 2조1707억원을, 넥센타이어는 2018년 1조9840억원, 2019년 2조223억원, 2020년 1조6981억원을 기록했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타이어 리콜의 경우 대부분 타이어 옆면에 DOT 마크와 고유 식별번호 등의 표시 문제로 진행된다"며 "트레드 분리는 성향이 다르다. 과거 이같은 문제로 운전자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트레드는 차량의 밀림과 제동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연결 부위가 분리되는 건 타이어 기능을 상실한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미국에서 진행된 것으로 현지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메디슨, 차세대 초음파 솔루션 선보인다

19일부터 'KIMES 2026' 참가

삼성전자 의료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이하 삼성)이 의료진의 진단 경험을 혁신할 차세대 초음파 솔루션을 대거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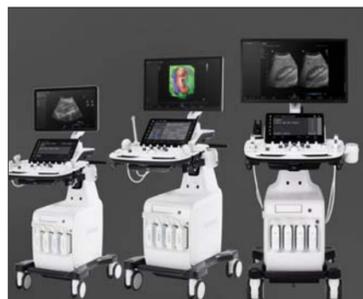
삼성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IMES 2026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의 'V' 시리즈를 새롭게 정의하는 초음파 브랜드 '원 플랫폼'은 삼성의 고성능 반도체·컴퓨팅 기술기반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해 AI 기능의 확장성을 크게 높였다.

원 플랫폼이 제시하는 세 가지 고객 가치는 ▲프리미엄 장비의 DNA를 계승한 일관된 워크플로우 ▲복잡한 기능을 단순화한 원클릭 솔루션 ▲AI 기술 기반 일관된 결과다.

V 시리즈에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R20·Z20과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도 여러 장비를 하나의 장비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신제품 'V4'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V4는 초음파 장비의 주요 소음과 고장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냉각 팬을



삼성 초음파 진단기기 V 시리즈를 새롭게 정의하는 초음파 플랫폼 브랜드, 원플랫폼.

/삼성메디슨

제거한 세계 최초의 팬리스 초음파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팬 소음을 제거한 제로 dB 진로 환경을 구현하고 장기 사용 안정성을 높였다. 전력 소비도 기존 대비 약 35% 절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가전제품 원격진단' 글로벌 인증

넴코 'AI 트러스트 마크' 취득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가 글로벌 인증 기관인 넴코(Nemko)가 주관하는 'AI 트러스트 마크(AI Trust Mark)'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넴코는 9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노르웨이 기반의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이다. 전세계 150여 개국의 규격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2024년부터 AI 시스템

의 기술적 투명성과 윤리적 안정성을 보증하는 AI 트러스트 마크를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는 제품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 상담사가 진단과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구남영 기자